

삶과 세월속에 핀 돌의 아름다움

◇선암사 승선교

은광준 외 3인 공저 '징검다리 건너 석성에 오르다'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도구는 돌이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돌 다루는 기술의 발달은 문명의 발달을 의미한다. 인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돌 속에 담았고, 이렇게 탄생된 조형물들은 시대를 초월해 모두의 마음 속에 새겨져 같은 희망을 품게 한다. 수천년이 지난 지금 옛 사람들은 없지만 돌은 남아 있다. 이처럼 돌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물론 불교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돌 조형물은 주요한 키워드가 된다.

**가람 흔적 찾게하고
깨달음·신앙심 갖든
돌의 역사·의미 읽기**

석물 등에 돌보기를 돌이낸다. 이를 통해 글쓴이들은 수백,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오는 돌 건축물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미학은 물론 불사의 세계까지 읽어낸다. 그렇다면 불교에 있어 돌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석축'에 대해 연구한 박방룡(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원) 씨는 '사라진 옛 절터를 소생시키는 단서'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이 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한다. 즉 옛 절들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석축이라는 것이다. 불상, 불전, 탑 등이 모두 사라지고 흔적만 남은 옛 절터에서 가람배치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주춧돌이다. 이 주춧돌은 가람배치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이고, 가람의 전체적인 위치가 파악되면 그것을 토대로 남아 있는 탑과 문양 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옛 절터에서의 돌은 법당은 물론 절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이다. 경주 황룡사지와 같은 사지가 대표적 예이다. 또 석축은 이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바로 두 개의 세계를 나누는 매개의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번뇌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생이 있는 현실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이다. 또 석축을 부처님의 집을 떠받드는 연화대좌로도 여긴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항상 맑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석축은 부처님을 짊어짐으로써 불교의 세계로 인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사찰의 돌다리는 통행을 위한 수단 외에 피안으로 가는 길목이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온 공간과 시간 속에서

태어난 돌 조형물에는 우리네 삶의 이상이 오롯이 함축돼 있다. 특히 사찰의 석축과 석탑 등에는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신앙과 불교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도 우리는 사찰의 석축이나 돌다리를, 그리고 여러 돌 조형물을 보면서 정교하고 과학적인 면에 놀라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조들의 조형적 기에는 생활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문화예술이 그렇듯이, 삶을 떠나서 조각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돌을 매개체로 한 한국의 역사와 한국미의 원형 탐색이라 할 수 있겠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이책의 한구절

■ "사찰을 장엄하고 있는 여러 장식문양과 조형물은 불교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향한 구도자들의 염원을 드러내는 표상이다. 일주문은 일승법문을, 탑은 부처님을, 용은 불법수호와 함께 법당이 곧 반야공성임을 상징한다."

—전국 250여 사찰의 그림, 조각, 건축물 등 장식들을 일일이 답사하고 쓴 <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둘째권), 글쓴이는 문화관광부 문화재 전문위원 허근 씨. 값 1만5천원.

■ "높은 산 깊은 골을 찾으면 번거로운 세속의 잡사를 잊을 만한 옛 절이 많이 있다. 이런 옛 절 대부분은 한국 불교사를 빛낸 고승·대덕·거사들의 수행의 자취가 서린 역사의 현장이다. 이런 현장을 단순한 관광지나 유원지로 보아 넘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한국불교사를 빛낸 고승·대덕·거사 25명의 생애와 수행, 그리고 그들이 주석하며 불법의 진리를 펼쳐나간 명찰 순례기. <고승과 명찰>(책이있는 마을), 황원갑 지음. 값 1만5천원.

**"번뇌 가득찬 인생이지만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면
진여불성 깨달을 수 있다"**

■ "불교음악은 불교음악으로서뿐 아니라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나라의 민족음악과 직결된다. 대승불교권에 속하는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은 불교음악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불교음악 연구는 불교국가의 민족음악 비교연구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될 수 있다."

—경전을 토대로 불교의 음악과 악기, 그리고 전래과정을 집성한 불교음악 연구서. <한국불교음악사연구>(장경각), 글쓴이는 국립국악관현악단장을 역임한 박병훈 씨. 값 2만5천원.

■ "인생은 헛 사는 것이 아니다. 생사와 열반이 항상 같이 이룬다는 말이 있다. 번뇌에 가득찬 인생이지만 참되게 살려는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그 속에서 진여불성의 빛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번뇌 즉 보리의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말이다."

—이화여대 등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지난 86년 정년 퇴임하고 경기도 포천 죽엽산 자락 말구리 마을과 갑사 대자암에서 구도생활을 하고 있는 이만덕 씨의 수상집. <여든 살의 연꽃 한송이>(불광), 값 8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사신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재	미재하우스
2	산사에서 부처님 마음의 편지	명정	좋은날
3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상섭	원치라인
4	마을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화	법공양
5	그들은 마을을 보고 있었다	세동	문화동네
6	사원예법과 불자예절	성수	여래
7	선방일기	지허	역사신문
8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빛다의마을
9	원효의 금강삼매경본	은정희	일지사
10	이른 아침에 나를 기억하라	탁남한	지혜의나무

도서 안내: (02)737-0695

왜 참회해야 하는가

김현준 지음 '참회·참회기도법'

참회의 일반적 의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온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이다.

도서출판 효림에서 불교신행총서 6책 권으로 펴낸 <참회·참회기도법>(효림)은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참회하기를 권하고 있다. 불·보살에게 진심으로 참회할 때 과거의 모든 죄악이 소멸된다는 것이 참회를 권하는 이 책의 주된 이유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강점은 참회의 의미부터 기도법까지 막힘 없이 환히 알게 하는 참고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죄업을 짓게 되는 까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장과 참회'를 비롯 '절을 통한 참회', '참회 열매',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점'까지 참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값 3천5백원. 김중근 기자

'적게' 쓰고 '다시' 쓰는 환경보호 비결

최종덕 교수 지음 '함께 하는 환경철학'

환경철학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짧은 이야기를 수록한 <함께 하는 환경철학>(동연)이 나왔다. 글쓴이는 본지에 '불교와 과학'을 연재하고 있는 최종덕(상지대 철학과) 교수. 그는 환경철학의 기본 사상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환경철학의 밑바닥에는 인간성 회복과 사회 비판의식이 깔려 있다. 환경문제도 사회제인 만큼 이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틀어머리에서 "우리의 자연을

보존하고 내가 남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필요한 지식은 간단하다"고 조언한다. 적게 쓰는 것과 그 쓴 것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이렇게 간단한 논리를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 잘못된 개인에게 있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그는 또 이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자연을 물질로만 보는 입장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올바른 환경관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그의 환경철학은 '마음', '사회', '철학'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묶었다. 교육환경과 환경교육, 녹색의 마음, 일하는 마음 등의 글을 읽고, 환경문제는 사회문제, 자연의 흐름과 환경 등 환경철학을 대변하는 글들이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뜻뜻하고 따뜻한 인간애

박일문 소설 '추억'

<살아남은 자의 슬픔>의 작가 박일문 씨가 자신의 기억을 더듬는 산문 소설 '추억'(실천문학사)을 내놓았다. '내 최초의 기억은 대청마루에서 영금영금 기던 기억이다'로 시작되는 이 책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가 뿌리 깊이 감춘 뜻뜻하고 따뜻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들추어낸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쫓아가는 추억



여행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해준다. 이 책은 가장 아장 결단 최초의 여행길과 사랑채에 드러났던 사람들, 방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누워 있던 죽부인과 키 큰 수수발을 지날 때의 느낌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 또한 글쓴이의 승려생활과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구도행도 엿볼 수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동자승 자아 깨닫는 구도 이야기

마하제바

<비사론>에 나오는 마하제바(mahadeba), 즉 대천 스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장편 구도소설 <마하제바>(노가민 지음, 선영사)가 나왔다. 마하제바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았으나, 이를 크게 뉘우치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이룬 스님이다. 이 소설은 이 마하제바의 이야기를 소개

로, 지리산 영인사를 무대로 전통지향적인 불일과, 개혁지향적인 벽파를 통해 극단적인 전통지향과 개혁지향을 거부하고 중도적 조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한 천진난만한 동승 흥운이 자아를 깨달아가는 구도소설이다. 이 작품은 복잡하면서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전체적인 흐름은 벽파와 그의 제자 흥운의 만행을 따라가는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의해 개별적인 영기전도능력 전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자 : 윤정주

고차원의

元極學
진여(眞如)

氣

수련원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책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도서출판 슈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

수행의 체험에서 나온 책이라야 매력 있는 법

"잘 썼습니다. 눈을 열어주는 길이 있어요"

-통도사 한주 호명 스님

참선에 대한 모든 오해와 혼란은

'선의 정신이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간화선의 교학적 근거(제1편 선의 정신이론)와 수행이론(제2편 수행론)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 시의적절한 대응 -조선일보

서양철학에 대해 학문적으로 강도높은 비판을 가한 예는 드물었다. -불교신문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근거로 '선'에 대한 정신이론을 확립 -동아일보
머칠 전에 변상섭이라는 사람의 책을 봤는데, 잘 썼습니다. 눈을 열어주는 길이 있어요 -현대불교(본스님과의 대화) 중에서

서양철학이 개념의 이론화 작업에 그친 데 비해 선은 수행과 결부시켜 실천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한발짝 진전된 이론 -경향신문
'선'이 철학의 궁극적 실천이라고 강조 -대한매일

팔만대장경으로 세운 선의 정신이론

禪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상섭 지음 / 신국판 336면 / 값 12,000원

저자 강연: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개,
장 소: (사)우리는선우 사무실(☎ 2278-8672)
시 간: 오후 7:00-9:30(매주 목요일)